



이 책은 이천 양정여고에서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진행된
‘학교 안 예술학교’ 프로젝트의 기록집입니다.

예술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숨쉬게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왔습니다.
이 여정의 조각들을 기록으로 묶어 앞으로 우리와 비슷한 여정을 떠날지 모르는 이들에게 바칩니다.

류재훈 선생님/선장 ‘학교 안 예술학교’의 설계자이자 선장 이태경
선생님/항해사 학교에서 신나는 예술로의 모험이 가능할 수 있게 도
와주신 양정여고 선생님 한성은 매니저/후원 양정여고의 실험이 가
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후원자 Feel so Good 아티스트
들 아이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아티스트들 양정여고 친구들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실재없이 노를 젓고, 돛을 정비하는 사람들
정지원 매니저/항해일지를 기록하는 사람 ‘학교 안 예술학교’의 여
정기록을 수집하는 이

학교 안 예술학교

기록1 ‘학교 안 예술학교’를 되돌아 보며 / 기록자 류재훈 / 6-13p

기록2 거꾸로 보는 ‘학교 안 예술학교’ 연대기 / 기록자 이태경 / 14-19p

기록3 딱딱한 학교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 기록자 이태경 / 20- 27p

기록4 FEEL SO GOOD? 아이들과 머리를 나란히 맞대는 9명의 아티스트 / 28-41p

기록5 드로잉반 ‘몰래 하는 즐거움’ / 기록자 류재훈 / 42-53P

기록6 미디어아트반 ‘UFO laborartory’ / 기록자 신정원 / 54-73p

기록7 건축반 ‘공간을 상상하는 힘’ / 기록자 양재찬 / 74-81p

기록8 그림책반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 / 기록자 진선미 / 82- 95p

기록9 사진반 ‘우리를 스치는 순간들’ / 기록자 최동인 / 96-111p

기록10 영상반 ‘나만이 바라보는 것’ / 기록자 최재원 112-125p

기록11 작곡반 ‘나에게서 출발하는 노래’ / 기록자 김영준 126-135p

기록12 캘리그래피반 ‘글씨에 묻어나는 나의 감정 그리고 마음’ / 기록자 리도원 /136-153p

기록13 재즈 ‘재즈와 만난 양정여고’ / 기록자 박예은 / 154-161p

기록14 주머니의 연필 + 위대한 낙서 / 기록자 이태경 /162-171p

기록15 누구든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 기록자 한성은 /172-177p

기록 1.

학교 안 예술학교를 되돌아보며

기록자 류재훈

2012년 겨울부터 예술가들과 창작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젖어있는 수업(교육)이라는 형식이 많은 중요한 것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하는 창작수업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처음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첫 시간부터 자신이 고유한 창작자임을 인지하고 시작하여야하며 강사 역시 수직의 관계에서의 기술 및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서 처음부터 자신을 표현하여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좋은 수업은 강사의 자유도가 높고, 강사 자신이 행복한 수업이 가장 질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참가자가 수동자일 때, 강사도 나름의 수동자로 책임을 다하려 할 때 이도저도 아닌 것이라 생각했으며 이러한 것들은 창작 수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배움’, ‘예술가와 함께 예술가로 살기’를 주장하며 나름 새로운 관점으로 창작수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모든 창작은 배움이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를 느낌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창작은 배움이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를 느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배움의 틀은 오히려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고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창작은 최소한 자기 존중이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주어진 것을 잘 따라하는 것으로는 창작이 거의 불가능하고 잘못하면 욕구를 불구를 만들수도 있다. 창작을 위해서는 ‘잘 지키는 것’보다,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잘 누리기’ 보다는, ‘잘 지키는’데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항상 ‘내면의 욕구’ 보다는 ‘외부에 요구’에 집중한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충성이 과한 시대, 자기에게 솔직한 창작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하나의 작품 안에서 그것을 표현한 그 창작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배우면 할 수 있고,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막연한 생각이다. 어떤 관점과 태도로 배움을 이해하고 참여하느냐,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배움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를 느끼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창작)할 수 있는 권한은 일정한 기본기를 잘 수행한 후 하사받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고유한 존재로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관계하며 배우고 창작해야한다. 모든 표현은 고유한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창작도 배움도

비로소 시작된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를 느낌, 자기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자기 경험, 자기 경험에서 얻는 통찰이 배움이다.

늘 주어진 것을 잘 수행해오던 우리에게는 이 관점이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고민해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민해야하고 때로는 낯선 내 모습을 들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말 고민해야할 것을 고민할 때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 잘 해야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가볍고 자유로워져야 한다.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져도 자신을 중심으로 관계하며 과정을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창작(표현)의 기쁨을 생생하게 느끼게되고,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얻게 된다. 창작은 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잘 표현하는 것이다.

2014 학교 안 예술학교 _ 말랑창작예술학교

한 지인을 통해 양정여자고등학교 중국어 교사 이태경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태경 선생님은 특이한 점이 많다. 빠르게 변하는 열린 세계에 대한 이해와 열망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만날 수 있도록 참 많은 일들을 학교 안에서 벌이고 계셨다. 이태경선생님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학생 중심의 동아리

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태경 선생님과 만남을 주선했던 그 지인은, 이 두사람이 서로 통하는 것이 많을 것 같아 연결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 피자집에서 우리는 첫 만남을 가졌고 서로가 추구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떠들며 댔다. 배는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 그렇게 하여 양정여고 안에서 학교 안 예술학교 ‘말랑창작예술학교’를 2014년에 열게 되었다. 내가 생각한 창작의 여러가지 생각을 양정여고에서 실행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설렘었다. 한국에서는 만만치 않은 고교생활에 이 아이디어와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잘 녹아들어갈까 걱정이 되면서도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실험)해볼 수 있다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경기도 이전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거리와는 상상없었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고 함께 하고있는 예술가들을 강사로 섭외했다. 평소에 이런저런 창작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각각의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수업은 주로 야간에 진행되었다. 주로 저녁 7시에 시작하여 9시에 마무리 하였다. 학생들의 빡빡한 학교 일정에 좀 놀라기도 하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 쉬어야할 시간에 이렇

게 학교에서 또 다른 수업을 듣는다는게 많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칠판이나 PT를 이용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피로감을 느꼈다. 대화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다소 생생했지만, PT를 사용할 때는 내용과 상관없이 금세 피곤한 얼굴을 띄었다.

2015 학교 안 예술학교 _ 인터스쿨라 inter + school + ar(t)
2014년 말랑창작예술학교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가한 학생들 뿐 아니라 따로 부탁하여 참가한 두분 교사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하여 2015년에도 학교 안 예술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1년의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 컨셉을 새로 만들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페러디 하여 ‘인터스쿨라’라는 이름으로. 인터스쿨라는 ‘inter + school + art’라는 뜻이다. ‘학교와 예술 사이’라는 뜻으로. ‘인터스쿨라’를 기획할 때 함께하는 예술강사 선생님들과 공유한 두가지 방향이 있었다. 하나는 ‘경계를 넘는 경험’, 또하는 ‘실패를 전제조건 여정’이었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정해진 하나의 길은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믿고 꿈꾸는 방향에 대한 믿음은 절대 모두에게 적합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기

준들은 존재하고,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우위에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 또는 오해하며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엄두해두되 절대적으로 신봉할 필요는 없다. 그 기준을 살필 순 있지만 순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기 욕구를 통해 경계를 넘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생생하게 그 경계를 넘을 때 세계는 피상적인 관념의 세계가 아닌 실제로 생생한 세계로 느껴지게 된다.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더 또렷하게 자신의 존재를 느끼며 방향을 수정하고 움직여 볼 수 있다. 그 자율에 의한 움직임이 바로 순수한 상태의 ‘표현’이며,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경험’과 ‘통찰’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순수한 여정의 열매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된다.

영화 ‘인터스텔라’ 초반부의 한 장면처럼 _ 펑크난 트럭을 몰아 허공을 떠도는 드론을 잡으려 경계를 넘어 옥수수밭(먹고 사는 문제)을 가로질러 추적하는 모습 _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호기심, 관심사를 쫓아 경계를 넘는 경험이 필요하다. 다른 또 하나의 방향은 ‘실패를 전제조건 여정’이었다.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잘 이루어내고자 하는 ‘책임’에 대해 민감하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 결국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너무 구체적을 계획(제한)해 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창작 수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강

사가 이런 책임에 민감하게 되면 그 경직성과 결과에 대한 부담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버린다. 결국 자기에게 집중하여 가장 자기다운 실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하여 ‘경계를 넘는 경험’과 ‘실패를 전제조건 여정’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함께하는 모든 예술강사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시작하였다. 항상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할때는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다양한 그림들을 머릿속으로 많이 그린다. 풍부하게 상상하는 만큼 어떠한 기대들은 더 또렷해진다. 2015년 인터스쿨라는 앞서 이야기한 방향에서의 실험적인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수많은 종류와 많은 량의 학업에 깔려 허덕이는 존재가 아닌, 그 학업과 지식 위로 올라가 _ 자신을 주체로 발견하여 _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였다. 분명히 자기경험에 의한 자기 통찰은 그렇게 주체적으로 자신을 느끼고 세상에 반응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2015년 학교 안 예술학교 ‘인터스쿨라’는 ‘씨프프로그램’을 만나게 되고 재정적 후원을 받아 더 마음껏 원하는 바를 펼칠 기회를 얻게된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을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공간에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예술적인 흔적들을 남겨보는 데까지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오랜기간 수업이 끊어지게 되어 원하는 만큼의 실험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2016 학교 안 예술학교 _ feel so good

2015년 인터스쿨라를 아쉽게 마무리 하면서 오히려 얻은것이 있었다. 메르스 사태 등 진행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실수들이 있었지만, 학교 안 예술학교의 가치와 가능성, 그리고 적합한 성격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큰 확신으로 이어졌다.

반성 : 중요한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교육... 중요하고, 예술교육... 역시 중요하다. 학교도 학생도 학문도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앞에서 경직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경험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오히려 어설픈게 낭비해 버린다는 것이다. 양정여고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나름의 결론 중 하나는, 학교 안 예술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가볍게 즐겁게 진행할 때 오히려 진정성있게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다. 무거워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양정여고에서의 학교 안 예술학교가 학생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더 가벼워질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 찰나의 쾌감이 상당히 크고 기뻐다. 그래서 학교 안 예술학교 컨셉을 ‘feel so good’으로 정하며 1년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구성 : 모르게, 다르게, 새롭게

강사도 참가하는 학생도... 아무도 미리 구체화 시키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끌리는 형태를 만들고 싶었다.

기록 2.

거꾸로 보는 학교 안 예술학교 연대기

기록자 이태경

학교 안 예술학교 연대기

2014-2016

2017	1월 4일	학교안예술학교 참여학생 회고 및 인터뷰 (양정여고)
2016	12월 30일	영상반 학교 및 시내 거리 상영회
	12월 27일	미디어아트반 제작의상을 입고 거리행진
	12월 20일	재즈반 산부인과 공연
	12월 13일	드로잉반 시민 참여 행사 진행
	12월 9일	참여 예술가들의 회고 및 인터뷰 (오늘 살롱)
	12월 7일	캘리그래피 학교내 팝업 캘리그래피 제작 (비가오면 지워지는)
	12월 6일	커뮤니티 매핑' -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의한, 우리의 지도 만들기
	11월 10일	예술가들의 모임 (어반소사이어티)
	11월 8일	양정여고내 그래피티존 제작
	11월 1일	C프로그램과 예술가 학생들과의 만남 'The station' (양정여고 음악실)
	10월 11일	양정여고 학교안예술학교 2학기 개강
	9월 20일	2학기개강 연기 결정
	9월 9일	학교안예술학교 2학기 접수 페이지 개설
2017	9월 9일	학교안예술학교 소개행사 (양정여고 음악실)
	8월 30일	학교안예술학교 2학기 준비모임 (강원 원주)
	8월	one day sailing with artist 진행
	7월 28일	one day sailing with artist 준비모임 (항해도 배포, 항해일지 점검)
	1월 4일	학교안예술학교 참여학생 회고 및 인터뷰 (양정여고)

2016

12월 30일	영상반 학교 및 시내 거리 상영회
12월 27일	미디어아트반 제작의상을 입고 거리행진
12월 20일	재즈반 산부인과 공연
12월 13일	드로잉반 시민 참여 행사 진행
12월 9일	참여 예술가들의 회고 및 인터뷰 (오늘 살롱)
12월 7일	캘리그래피 학교내 팝업 캘리그래피 제작 (비가오면 지워지는)
12월 6일	커뮤니티 매핑' -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의한, 우리의 지도 만들기
11월 10일	예술가들의 모임 (어반소사이어티)
11월 8일	양정여고내 그래피티존 제작
11월 1일	C프로그램과 예술가 학생들과의 만남 'The station' (양정여고 음악실)
10월 11일	양정여고 학교안예술학교 2학기 개강
9월 20일	2학기개강 연기 결정
9월 9일	학교안예술학교 2학기 접수 페이지 개설
9월 9일	학교안예술학교 소개행사 (양정여고 음악실)
8월 30일	학교안예술학교 2학기 준비모임 (강원 원주)
8월	one day sailing with artist 진행
7월 28일	one day sailing with artist 준비모임 (항해도 배포, 항해일지 점검)
5월-6월	feelsogood part 2 진행 (5개 아틀리에)
4월20일	part1 #4_ Creative Party ' feel so good'
4월13일	part1_#3 나를 찾는 우주여행_이슬기
4월6일	part1 #2 현재의 놀이_만들이
3월29일	part1#1 라스코동굴을 거닐며-시작!

2015	3월11일	학교안예술학교 2016 체험행사
	12월	반짝반짝사진반 사진집 제작
	9월16일	학교안예술학교 강사간 모임
	9월4일	재즈 공연
	5월19일	2015년 학교안예술학교 시작 'interschoolar(t)
	5월14일	"양정여고 학교안 예술학교 INTERSCHOOLAR(T) 준비모임 : Briefing 'Here we go!'"
2014	12월18일	최동인 작가님 & 류재훈 선생님 회고
2014	10월20일	양정여고 말랑창작학교 시작
	7~9월 어느날	김성호 모션센스 대표(영상 스튜디오) 류재훈 이태경의 미팅 주선

기록 3.

딱딱한 학교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기록자 이태경

#1 intro

예술이라는 것은 제게는 얼마전 만해도 저와는 먼 곳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웬지 모르게 예술은 전문 작가들이 하는 것이고 o o작가 전시회 같은 곳에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었죠. 평소에 학교 생활과 관련된 포스터를 만들거나 영상, 노래들을 만들면서도 이 것이 나만의 창작 활동이 될 수 있거나 예술 활동이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분들과 학교안 예술학교를 3년간 만들어오면서 모두를 위한 예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예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2014년 무더웠던 여름 한 피자집에서 류재훈 선생님과 김성호 영

상감독님을 만나 예술과 청소년 교육에 관한 즐거운 대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었습니다. 이 즐거운 상상들이 상상만으로 날아가 버리기 전에 바로 실행에 옮겨보자고 서로 다짐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3년간 이어질 항해의 첫 지도를 그리고 결의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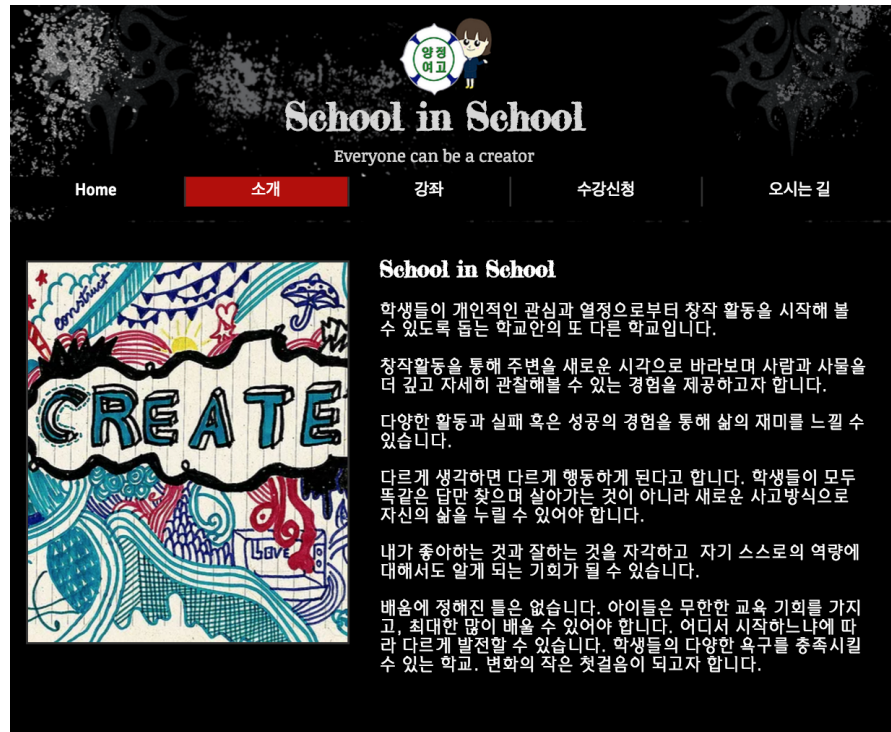
재훈 쌤이 양정여고에서 진행될 예술학교의 구체적인 기획과 함께 해주실 여섯 분의 예술가 분들을 모아주셨고, 저는 공교육 내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2014년 공교육 내에서 예술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교육부에서 2014년부터 실시한 '대안교실'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안적 교육으로 잘 운영해보기 위해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대안 교육'을 찾아 대안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개 대안학교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적 다양성을 찾아서 혹은 배움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예술학교도 공교육 내에서 창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곳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학교안 예술학교와 같이 모두를 위해 열린 대안적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전국 1,650개교 중에 유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례가 대안교실 매뉴얼에 담겨 전국에 배포되기도 했구요.

양정여고의 학교안 예술학교는 진학을 위한 또 하나의 참신한 스펙쌓기가 아니라 학생 자신을 위한 곳이고, 고유한 자신을 관찰하고 표현하기 위한 교육임을 밝히며 닳을 올렸습니다. 아래는 2014년 첫 입학생 모집 당시 홈페이지에 올렸던 소개 글입니다.

2014년 공교육 내에서 예술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교육부에서 2014년부터 실시한 '대안교실'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안적 교육으로 잘 운영해보기 위해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대안 교육'을 찾아 대안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개 대안학교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적 다양성을 찾아서 혹은 배움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예술학교도 공교육 내에서 창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곳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학교안 예술학교와 같이 모두를 위해 열린 대안적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전국 1,650개교 중에 유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례가 대안교실 매뉴얼에 담겨 전국에 배포되기도 했구요.

양정여고의 학교안 예술학교는 진학을 위한 또 하나의 참신한 스펙쌓기가 아니라 학생 자신을 위한 곳이고, 고유한 자신을 관찰하고 표현하기 위한 교육임을 밝히며 닳을 올렸습니다. 아래는 2014년 첫 입학생 모집 당시 홈페이지에 올렸던 소개 글입니다.



[그림1] 2014년 만들었던 말랑창작예술학교 홈페이지
<http://taigui77.wixsite.com/malang>

학교안 예술학교 소개 / 이태경

학생들이 개인적인 관심과 열정으로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학교안의 또 다른 학교입니다. 창작활동을 통해 주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람과 사물을 더 깊고 자세 히 관찰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실패 혹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답만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 으로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자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움에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교육 기회를 가 지고, 최대한 많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학교. 변화의 작은 첫걸음이 되고자 합니다.

스스로에게 창작을 '허'하라 / 류재훈

'창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 이며 책임이다.'
 '내면의 욕구'보다 '외부의 요구'에 더 충실해야만 하는 우리 삶, 그에 대한 결핍은 결국 우리 내면의 욕구 마저 망가트린다.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고급 정보와 공식이 아니 라 순수한 창작의 경험과 그 경험의 주체인 나를 통해 만들어가 는 창조적 관점이다.
 '스스로에게 창작을 허하라!' 세상에 중심에 서는 용기와 책임 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4년의 예술학교는 단 두 달의 짧은 여정이자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강렬했고 설렘과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교육이 학교에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함께 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함께 해주셨던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내년에도 청소년들에게 창작 예술교육을 지속되길 희망하며, 내년에는 더 깊이 발을 담그어 보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014년 고유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말랑창작예술 학교는 해마다 조금씩 학생들과 학교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스며들 곳 없어보이는 아스팔트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가 단비를 온 몸으로 마셔 싱그러운 잎을 피워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표현하는 창작 교육이 분명히 필요한 것을 알지만, 입시교육에 쫓기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느끼면 어떨하나, 아니 관심을 가지기는 할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려와 달리 매년 70명~1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안 예술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학교안예술학교를 통해 경쟁과 스트레스로 얼룩진 학교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힘을 얻는 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학교안 예술학교는 2014년 말랑창작 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2015년에는 학생들이 창작을 통해 자신에게 익숙한 지점의 경계를 넘어 멀리 나아가보길 바라며 interschoolar(t)로 부제로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이와 같은 새로움과 창작을 누림이 낯설음을 넘어 즐거움에 이를 수 있도록 feel so good이라는 부제가 달려 이어져왔습니다. ‘창작을 허하는 것’에서 출발했던 교육의 방향성도 해가 갈 수록 점점 학교안 예술학교만의 고유함과 색깔이 짙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장 뒤편에 새겨지고 기록된 것들은 학교안예술학교의 성과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함께 해온 예술가들과 학생들의 회고와 목소리, 학교와 3년이란 시간속에 새겨진 날 것 그대로의 흔적과 향해 일지입니다. 3년 간의 향해 기록 일부를 모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기록4.

Feel so good?

아이들과 머리를 나란히 맞대는
9명의 아티스트

류재훈 / 드로잉

‘창작(표현)’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최고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예술(예술가)’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좀 더 가깝게,

예술가와 예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며 일합니다.

모두가 수평의 세계를 만나고 고유한 자신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참 소중한 것을 품고 누리며 실현하며 나누는 자연스럽고 풍부한 삶을 소망합니다.

현재 소프트 유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리기'로 사람들을 만나고,

순수창작 예술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NPO를 위한 창작 워크숍 : 창조적 관찰과 창작의 경험을 통해 발견하는 '퍼스널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

서울시 NPO 지원센터, 2014 공익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군포문화재단 내 아이의 예술교육 지도법 '우리 아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연스럽게 그리기' 강의

군포문화재단 평생교육 종사자를 위한 '창의력을 깨우는 자연스럽게 그리기' 워크숍 진행

군포문화재단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한 '창작아틀리에원시림' 강의

성균관대학교 다산창의력센터 대학생을 위한 '드로잉 : 창의력을 깨우는 자연스럽게 그리기' 워크숍 진행

2014 창의.인성 교육 현장포럼 '예술창조교육, 藝術이 創意에 말을 걸다', '자연스럽게 그리기를 통한 창조성 깨우기' 워크숍 진행

바하법집 인문학 교실에서 드로잉 강의

김영준 / 작곡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일상의 작은 단면을 포착하여 이 세계 전체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광대가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예술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은 사람을 잠시 다른 세계(환상)로 옮겨 놓는다.

연주밴드를 하다가, 연주로는 도저히 내 안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없어 보컬밴드를 만들게 된다. 밴드에서 노래를 만들다가 여러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내안의 이야기들을 언어(가사)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시’를 배우게 된다. 그렇게 50여곡의 노래를 만들었다. 홍대나 각종 현장에서 종종 공연하지만, 공연 페이는 장담할 수 없다. 불러주는게 어디냐? 감사하고 살아야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기타강사도 하고, 왜 이리 월세가 비싼지 · 장가 가는건 왜 이리 힘든지 등의 일상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작곡강의/스마트폰 밴드 같은 강의도 하고 있다. 재미없으면 싫증난다. 그래서 일단 나부터 재미있는 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해본다.

싱어송라이터, 기타/작곡 강사, NGO 활동가, 걸다리 문화/공연기획자 등 다중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만, 정신분열증이 있거나 그런건 아니다. 이러한 다중 정체성 현상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본다. 이렇게 살면 돈은 잘 안 벌린다. 하지만 간신히 먹고 살 수는 있다. 가난해도 자기가 하고싶은거 하면서 즐겁게 사는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 본다.

별명 - 하늘소년

웹사이트 - 하늘소년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withskyboy>

동영상 - EP3집 “콩나물국만 먹는 이유” 뮤직비디오: <https://youtu.be/ewXeaSIX5uQ>

<https://www.youtube.com/watch?v=ewXeaSIX5uQ>

1. 시민사회단체 ‘희년사회’, ‘전국세입자협회’

- 토지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활동
- 주거권 침탈 현장 활동(포이동 재건마을, 녕마공동체)
- 무주택자의 날, 세계 주거의날, 거리캠페인 등 기획

2. 달싸밴드 - 기타, 보컬(리더)

-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홍대 카페에서 정기 공연

3. 쿵썽썽덕공작단 - 기획

- 대학강사 및 교육문제해결 활동

4. 작곡 강의

- 최계바라 기획사 워크샵(2회)
- 전국백수연대 캠핑여행 작곡 워크샵
- 작곡 워크샵(1~3기)
- 의정부중학교 플레이 리더 특강(작곡)
- 우양재단 평화강사 심화양성과정(WPTC 6기) 특강 (동요 만들기)
- 작곡 아카데미(1~3기)

5. 동네에서 가치노을자 : 부명과 동아리축제 진로체험 부스 (스마트 뮤지션)

앨범

One band 디지털싱글 앨범(작,편곡/연주)

다원예술팀 ‘살림꾼’ 앨범(작,편곡/연주/노래)

개인앨범 ‘하늘소년’ EP 1집, 2집, 3집(작,편곡/연주/프로듀싱)

그밖에 다수 앨범에 작편곡, 세션으로 참여

리도원 / 캘리그래피

just you.

지금 이 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먹고살기 바빠,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표현할 시간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죠.

어느 순간, 마음에 말을 걸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내가 좋아하는건 어떤 건지...

일상을 느끼고 담아, 기록하는 시간이예요.

나의 모든 순간을 말이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단지, 당신만 있으면 돼요.

캘리그래피 단체전

2015 현 캘리그래피 디자인그룹 어울림회원

'한글일일달력展'전시참여 (세종이야기 한글갤러리) / (서울도서관)

'덕담한마디전'전시참여 (국립한글박물관) / (여주강천보한강문화관)

'덕담한마디전'전시참여 (근현대디자인박물관)

2014 '덕담한마디전' 전시참여 (근현대디자인박물관)

'꿈을꾸다展'전시참여 (갤러리뚱)

'한글일일달력展전시참여' (세종이야기 한글갤러리)

한글날 큰잔치 '한글멋글씨전' <한글아놀자> 전시참여 (광화문광장)

심화캘리그래피그룹전'삼팔光甞전' 전시참여 (갤러리뚱)

캘리그래피통합전'다여다이(多如多異)전시참여 (우영갤러리) 외부행사

캘리그래피 작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한글이름쓰기'

(세종이야기 한글갤러리)

2013 한글 이름씨주기 부대행사참여 (광화문광장)

수업

2014 고양문화재단 일일특강 캘리그래피 수업 (상상끼리)

2013 터치포굿 '감정의연말정산' 일일특강 캘리그래피 수업 (홍대상상마당)

박예은 / 재즈

재즈라는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니 어느덧 재즈와 함께 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여전히 늘
설레는 연인과도 같은 재즈음악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즐거
워하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찾아나가길 원합니다.

박예은/ 재즈가수

Conservatoire d'Evry (France)

Conservatoire de Bobigny (France)

재즈 학교 Le cim (Paris)

베를린 극장 Wab (Germany)

재즈 클럽 Sunset, Cafe Universel 공연 (Paris)

리쌍 3집 피쳐링

웅산 코러스

KT 아트 홀, 천년동안도, 올댓 재즈, 블루문 등 클럽 공연

한강 숲 예술 학교

양정 여고 말랑 창작스쿨

신정원 / 미디어아트

www.drawinghero.net

2016

울지로 아뜰리에 전시 기획 및 참여
SIF 서울일러스트페어 Di.s 단체전 참여

2015

<드로잉히어로> 전시 @스페이스노아
유스보이스 컨퍼런스 <고백의 얼굴> 전시 @문화역서울284
ART제안 <생명·생명> 참여 @서울혁신센터 동물실험실

2014

유스보이스 미디어 교육자 2기 <드로잉히어로 라이즈>
창작자협동조합 파이콕 일러스트레이터 & 디자이너 활동

2013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유스보이스 8경 <거울에 비친 히어로, 잠에서 깨다>
다음세대재단 체인지온 오픈세션 드로잉히어로 프로젝트 발표

2012

유스보이스 미디어컨퍼런스 <그리고, 그리고>
유스보이스랩 프로젝트 <드로잉히어로>

심민아 / 컬러테라피

우리 주위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색.

그 색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색깔의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색을 통해 내 안의 자기다움을 되찾고,

나만의 창조적 자화상을 그려보는 시간

나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트루컬러북 이야기가 끝날 때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소중한 꿈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심민아/ 창의연구소 루미나 대표, 컬러테라피스트

서울시교육청 학부모대학 자아발견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창의학교 C-School 설립 및 교육디렉터

현대자동차 H-온드림*씨앗프로젝트 창업캠프 기획 및 진행

서울대 치의과대학 프로젝트 수업 기획 및 강연

KBS 2TV아침 방송출연

양재찬 / 건축

"건축과 도시가 가지는 핵심가치인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상의 공간을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과정입니다."

어반소사이어티 대표, 건축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진선미 / 그림책

삶이 예술이기를 꿈꾸고 추구하는 진선미입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을 졸업하고
조금은 늦게, 어렸을 때 묻어 두었던 꿈을 위해 프랑스로 떠나
로렌 미술 학교에서 이미지 나레이션을 전공하였습니다.
2012년 한국에 들어온 후 작업과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있는 그대로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현재 대안학교(광진구 아름다운 학교)
<이미지 나레이션> 자원교사
2012~ 현재 소프트유니브 그림책 수업
2014년 한강숲 예술학교 그림책 프로그램
2014년 군포평생학습원 <엄마 그림책 짓다> 2기
2014년 양정여고 그림책 프로그램
2013년 목동 청소년 수련관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2011년 Salon du livre de Contrexeville
(콩트렉세빌 그림책 박람회) 참여 작가
2010년 Salon du livre de Montreuil (파리 그림책 박람회) 참여 작가
2010년 BMI 그림책 전시(그룹) BMI, Epinal, FRANCE
2009년 Salon du livre de Montreuil (파리 그림책 박람회) 참여 작가

최동인 / 사진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찍고 싶은 사진이 있나?” 란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찍고 싶은 사진이 있어서

만화 작업을 하고 사진도 찍고 있는 최동인입니다.

2015년 현재 소프트유니브 소속 사진,만화 강사

서울 그린트러스트,사진반

이천 양정여고 사진반 수업

2014년 1월 “낭만 고양이, 인간세상을 탐닉하다” 출간 (글.구성) 관련영상

2009년 3월~2012년6월 캐논 코리아 웹진 “ 포토 다이어리” 만화 연재

2009년 4월~2013년 6월 20일 “안녕, 고양이” 블로그에 업로드, 현재 잠시

휴식 블로그바로그기

2011년 1월 “용산개 방실이 ” 출간 (글.구성)

2008년 12월 “찌꾸와 조리개 처음 만난 DSLR ” 출간

2008년 사진 개인전시회 “섬..” 홍대 네이처

네이버 포토갤러리 “포토락” 사진 에세이, 강좌 연재

2006년~2007년 월간 "포토넷" 포토 에세이 (만화 연재)

2004년 7월 일상.꿈.기억 단체 사진전-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강의

KTF 사진특강

서울 영동중학교 CA 만화반

삼성 농아원 사진반

서울 농학교 사진반

서울 중랑구 지부 수화센터 사진반

오산 중학교 방과후 교실 애니메이션반

인터뷰

월간 DCNZINE 2009년 10월호

<http://blog.naver.com/goodcdi/140098813942>

2008년 개인 전시회

<http://blog.naver.com/goodcdi/140120888548>

월간 사진 2012년 8월호

<http://blog.naver.com/goodcdi/140165101133>

예스24 2014년 4월

[http://ch.yes24.com/Article/View/24920?C-](http://ch.yes24.com/Article/View/24920?C-code=000_008_001%2F)

[code=000_008_001%2F](http://ch.yes24.com/Article/View/24920?C-code=000_008_001%2F)

매거진 c 2014년 5월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_nhn?](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_nhn?rid=2741&attrId=&contents_id=54826&leafId=2741)

[rid=2741&attrId=&contents_id=54826&leafId=2741](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_nhn?rid=2741&attrId=&contents_id=54826&leafId=2741)

최재원 / 영상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영상을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공간도 활짝 열려 있지요.

스스로를 창작의 주체로 인식하면서 영상이라는 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자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표현해 볼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정해진 도구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최재원 / root3 필름스튜디오 / director

영상기획 및 연출

촬영 및 편집

THSWORKS 프로모션 영상

Memory of Silence, Seoul [Short Film]

Vogue Korea [Fashion Film]

Dazed & Confused Korea [Fashion Film]

2014 아세안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2015 아랍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외 다수의 영상 제작

www.root3.co.kr

기록5.

“좋은 것들은 쉽고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만날 때 일어날 거란 생각이 있어서 ‘FEEL SO GOOD?’ 이라는 문장을 떠올렸죠. 기분 좋게 즐기다가 배우고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드로잉 몰래 하는 즐거움

기록자 류재훈











드로잉 / 정희주 / 1학년

저는 1학년 10반 정희주고요. 드로잉 수업을 이번 1년간 들었어요.
드로잉 수업을 설명하자면 ‘자율성’하고 ‘저를 위한 재미’라고 생각해요.

왜 ‘나를 위한 재미’인지?

남을 웃게 해주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남을 웃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를 위한 재미라고 생각해요. 1년 전에 처음했을 때는 미술학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드로잉 수업을 생각했거든요.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는데 들었던게 있으니까.

기대했던거랑 어떻게 달랐는지?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됐어요.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엄청 큰 종이에 막 그리는 수업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그때 친한 친구랑 같이 수업을 했거든요. 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여기에다가 하자” 이러면서 종이에다가 그림을 막 그리는 거에

요. 개 덕분에 적응을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다면?

저희는 그래피티가 너무 강렬한 기억이에요.
학교 담벼락에 있는데, 그건 지워지지도 않는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보고 가고.

가장 강렬하게 걱정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맞아요. 사실 불법이잖아요. 선생님이 학교 측에 허락을 안 받았으면서 몰래 가서 해야한다는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우리 이제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래피티 위에) 다시 페인트 칠 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사실은 허락을 받았는데 그래피티가 원래 밤에 몰래 가서 해야되는거니까, 두근거림을 주고 싶어서 거짓말한거라고.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두번째 시간에는 솔직히 말씀해주시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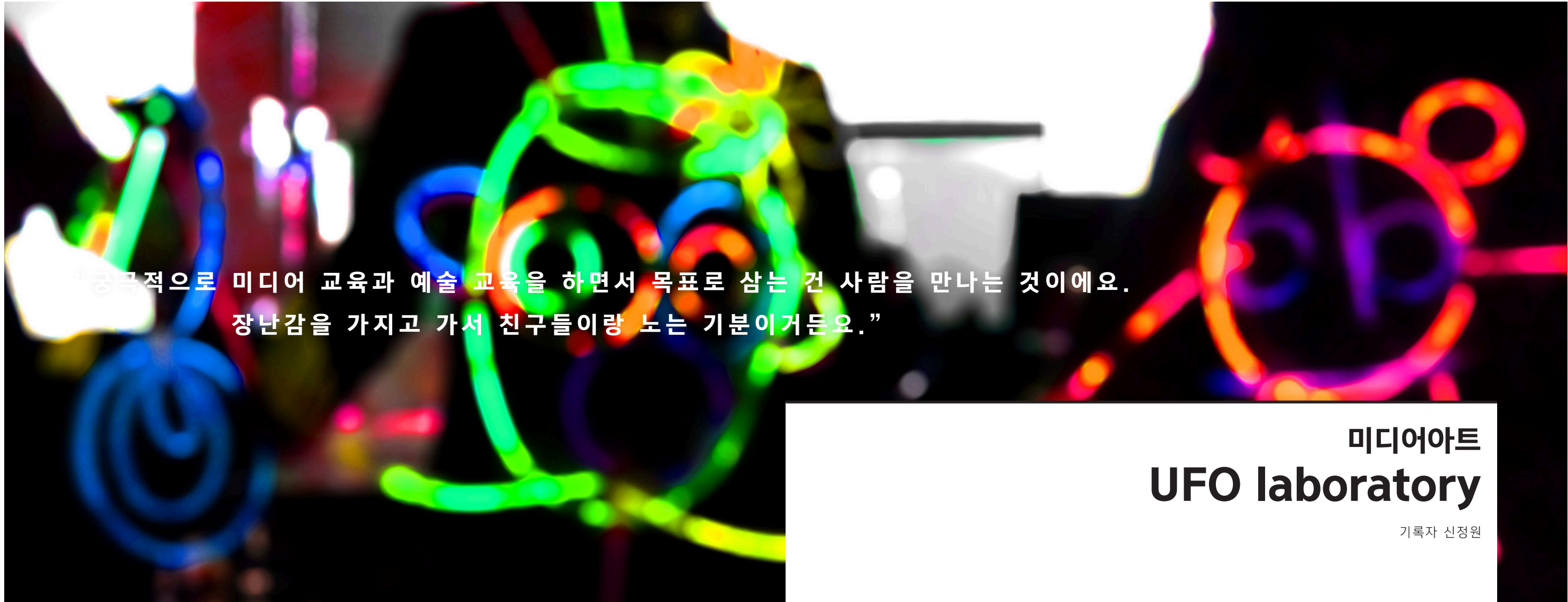
(좋았다는 얘기만 들어서) 혹시 아쉬운 점은 없는지?

있어요. 드로잉 수업 마지막 시간에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 팀을 나눴는데 저희 팀은 약간 계획만 거창하게 하다가 제대로 실행을 못했어요.

의도하거나 생각한 주제가 있었는지?

공기. 애들이랑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서 ‘공기’라는 주제를 잡고, 그 주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최종적으로 나온 아이디어는 커다란 폐 모양의 튜브를 만 들어서 어느 한 장소에 두고 사람들이 한 번씩 공기를 넣게 하는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공기를 가득 채워주면 뽕뽕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처럼. 작은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게 하고, 그러면 누구든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넣어줘야 항상 마음이 채워지는거죠.

학교에서라도 꼭 실행해보면 좋겠는데,
기회가 되면 애들이랑 해보고싶어요.



“궁극적으로 미디어 교육과 예술 교육을 하면서 목표로 삼는 건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기분이거든요.”

미디어아트 UFO laboratory

기록자 신정원



지난 5년간 드로잉히어로라는 청소년 드로잉 미디어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80여명의 아이들이 그려내는 총천연색 캐릭터를 만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림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은 저의 아이덴티티에 맞추어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친구의 경우는 드로잉을 통해서 충분히, 즐겁게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어떤 친구는 말로 풀어내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친구들은 캐릭터에게 입힐 옷을 만들고 싶어하기도 했고 캐릭터 주제가 작곡에 도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정체성 안에서 점점 더 좁고, 깊게 저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인적 필요와 별개로, 아이들에게는 그들 각자에게 맞는 재료를 보다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실험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캔디장의 Before i die, i want to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아트 레퍼런스를 공유하며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이 저도 모르게 움직여 선택한 재료들을 마음껏 맛보며 9번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UFO laboratory

미디어아트 강사 /신정원

기대 다양한 형태의 표현, 창작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미디어(도구)를 찾고,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과 만난다.
정원/장소 6-8명 @양정여고

커리큘럼

1. 10/11 워밍업 : 요즘의 일기

2. 10/18 나 대신 너 (스톱모션, 인터뷰 촬영)
드로잉이나 글과 같은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투영하여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다. 오브제를 선택하고 간단한 스톱모션 영상을 촬영하며 간단한 스토리를 담는다.

3,4. 10/25,11/1 너의 얼굴에 그리는 자화상 (1,2)
화장품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화자삼아 자신의 얼굴(외면, 내면)을 그려본다. 다른 사람의 얼굴 위에서 살아있는, 낯선 나의 얼굴을 만난다.

5. 11/8 내가 본 아름다움
함께 둘러앉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찾아간다.
다양한 드로잉 재료를 활용하여 각자가 발견한, 묵상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드로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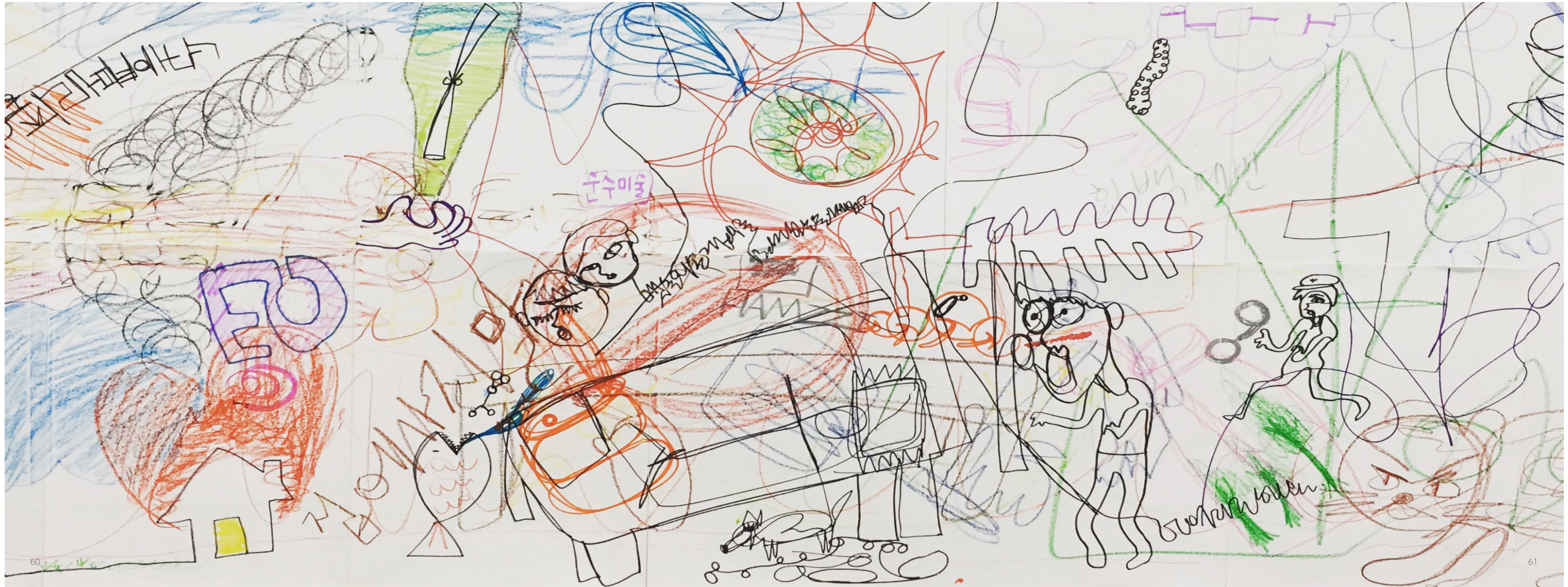
6. 11/15 나의 에너지
형광물질을 활용, 어둠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장면을 연출한다. 자신만의 동작, 형상을 총 동원한다.

7. 11/22 토론 - 영화 멜랑콜리아 감상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감성적, 철학적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8. 12월 중 개인, 공동작업
학교 밖으로 나가기 위한 각자, 또는 공동의 메시지, 방법을 찾아 구현한다.

9,10. 12월 중 퍼포먼스
학교 밖으로 나가 작업을 통해 세상과 만나는 경험을 갖는다.
(이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학생들과 다양한 레퍼런스를 둘러보고, 논의한 뒤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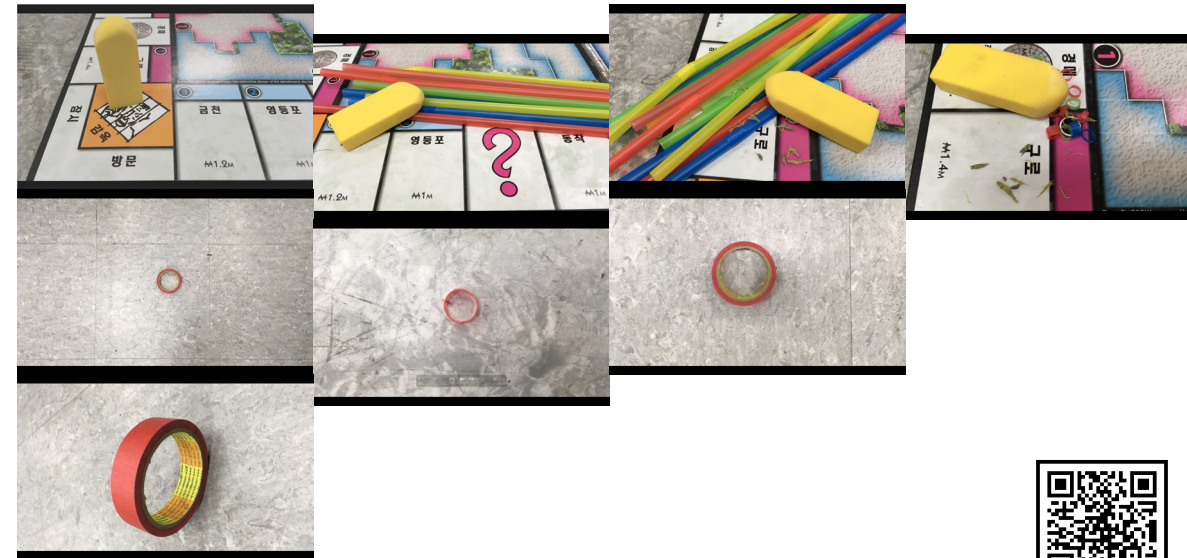




무제_이승연, 홍예빈
stopmotion animation



손해 아닌 기부_전예림
stopmotion animation



낙하산_최프린세스
stopmotion animation



#Glow girl
glowstick, mac





#Glow girl 2
@광희문 광장





기록7.

“아이들을 더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건축 공간을 상상하는 힘

기록자 양재찬



2016년 6월 - Stage Design

재즈와 건축이 콜라보했던 part-2시간에 실제 학교안의 공간을
선정해 상상속의 재즈공연 무대를 모델로 만들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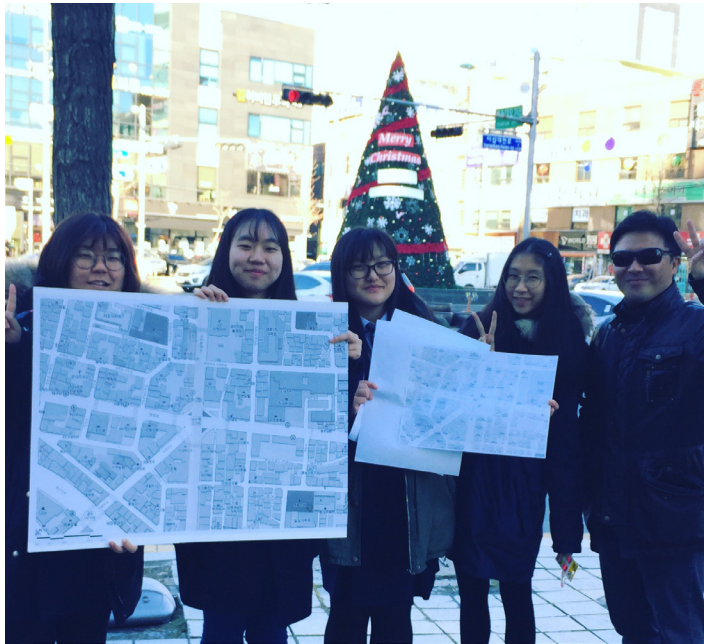


2016년 8월 - Oneday Sailing

여름방학 기간 중 하루를 학생들과 함께 해적이 되어 보냈던 탐색
정찰하며 보냈던 시간 중에 사무실 입구에 걸어둔 이미지들



2016년 11월 - Human Scale
'휴먼스케일'에 대한 이해를 위해
프랑스 현대건축가 르꼬르뷔제의 모듈 스케치를
1:1 스케일로 함께 그려보는 시간



2016년 12월 - Community Mapping

분수대 오거리에 모여 도심지내의 상업공간안에 설 수 있는 장소와
 놀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 매핑해보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지도 만들기!

‘2016 양정여고 건축반을 돌아보며...

1%의 멋진 건축물에 대한 동경 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99%의 일상의 공간들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가지는 것이
 2016년 양정여고 건축반의 숨겨진 목표였다.

밝고 유쾌한 여학생들과 함께 좌충우돌한 1년간의 건축여정을 통해
 학생들이 꿈꾸었던 우리집, 우리학교, 우리마을에 대한 순수하고 멋진 상상공간들을 언제라도 간직하기를 기원한다.

2017년 1월 양재찬

기록8.

“저는 청소년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교육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은 그렇게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애들이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누군가 하나라도, ‘나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쯤은 생기겠지?’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애들을 만나거든요...개인적으로, 소규모로 다가갔을 때 정말 멋지지 않은 애들이 없어요.”

그림책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

기록자 진선미

2학기 그림책 수업의 화두는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총 8회 계획이었으나 여러 사정상 3회 수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오랜 질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지막 시간에 나누었던 화두를 공유합니다.

“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찾아야 해요.”

어떤 만남

사실은 너에게 고백하는 이야기



프롤로그.

그날, 버스를 끝는데 체크카드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
언제, 어떻게 사라진 것인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지.



첫번째.

나는 두 손에 들고 있던 실뭉치를 놓치고 말았어.
실 끝이 네 어딘가 걸렸었나봐.
실뭉치들은 제각기 데굴데굴 바닥을 구르다 멈추었지.
나는 엉킨 실을 풀어가며 다시 감았어.
그리고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지.

두번째.

어쩌다가 그랬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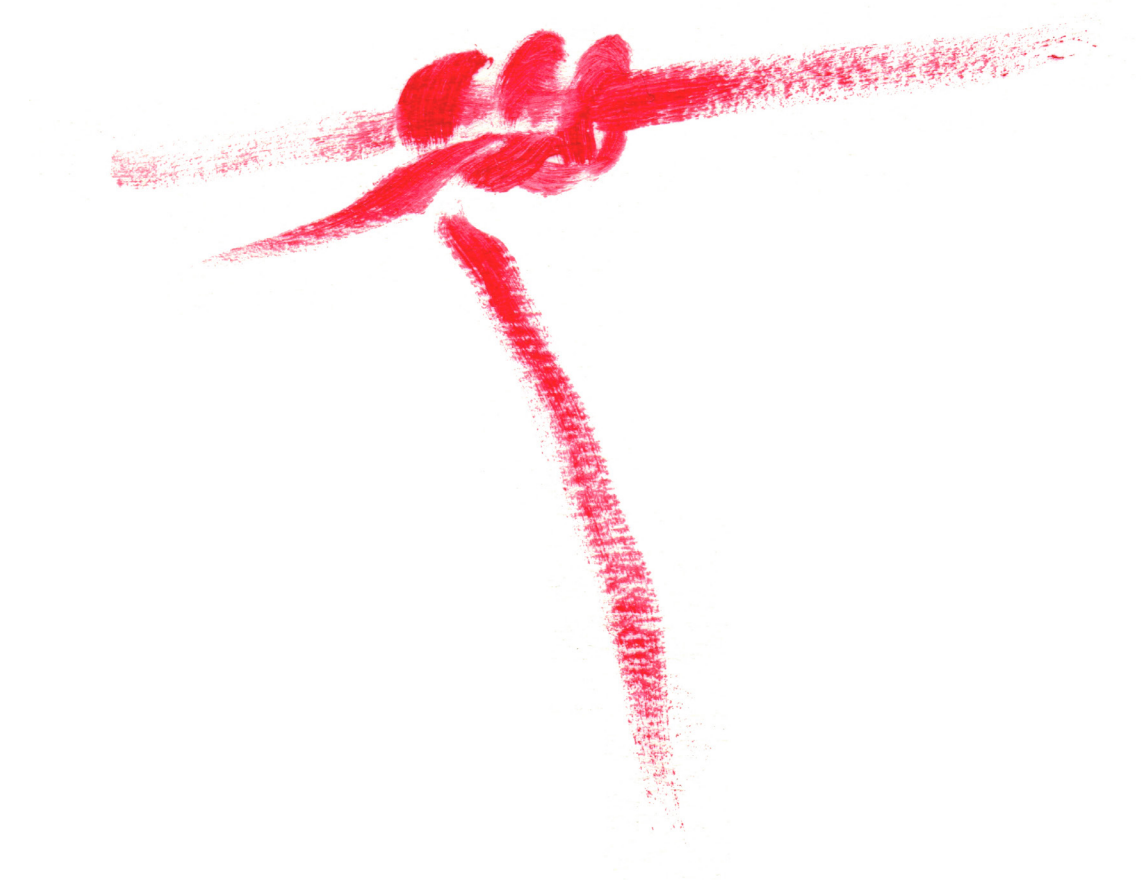
나는 바늘을 잡고 있었고, 너는 실을 잡고 있어서.

바늘은 빠지고, 한조각 사슬로 엮였던 실은 또르르르 풀렸지.

파란 가을 하늘에 사는 작은 벌레가 있고,

물고기 그림자가 영킨 그림자 사이를 헤엄치는 곳에서

나는 첫 코를 다시 잡으며 뜨개질을 했어.



세번째.

제법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어.

어디는 성기고, 어디는 촘촘하긴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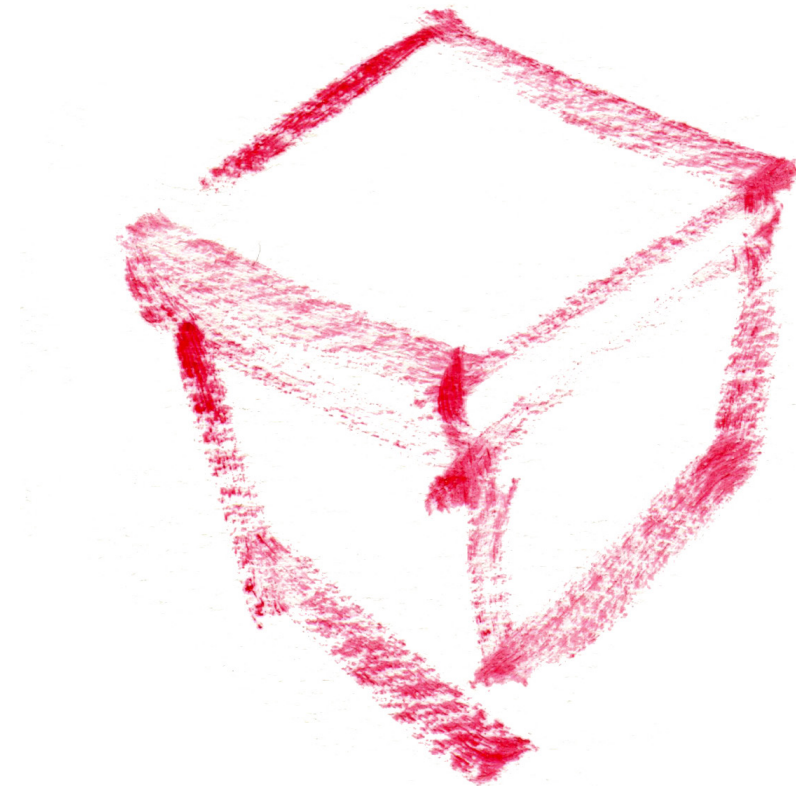
저 밑, 빠진 료가 하나 둘 보이기는 하지만.

절반도 채 못 뺐지만.



에필로그.

그 언젠가 네번째
너를 다시 만나면 나는
따뜻한 목도리 돌려줄 수 있을까?
너는 어땠니?
언젠가, 두고 온 중요한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림책 / 신소연, 신화연 / 2학년

화연: 저는 2학년 신화연이고요. 2학기 기간 동안 그림책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림책 수업을 ‘물감’하고 ‘잃어버린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잃어버린 것’은 우리 수업 주제였고요. ‘물감’은 그 물감이 아니고 저희가 물감을 붓으로 그렸을 때 저희 생각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어떤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생각한 것만큼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감’이라고 했어요.

소연: 저는 2학년 신소연이에요. 같이 그림책 들었고, 키워드는 ‘그림’이랑 ‘나의 자아.’ 수업 주제가 ‘나의 잃어버린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게 물건을 잃어버린게 아니라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저는 나의 자아를 잃어버렸다고 했고, 그걸 찾는 기간 동안 나의 자아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나의 자아’를 넣었고요. ‘그림’은 그림책 수업이다보니 저희가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림’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자아는 찾았나?

소연: 자아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찾았다기 보다는 ‘나의 성격을 찾았다, 나의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 그런 건 알게 됐어요.

성격을 찾았다는건 어떤건지?

소연: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가면 그 낯이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나도 노력을 많이 하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성격이다’ 그런 거요.

수강신청할 때 어떤 기대를 했나?

화연: 그림책 공고 떼을 때 (소연을 가리키며) 애랑 손 잡고 갔는데 요. 저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되어 있는데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있는데 드라마도 안 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적어서 취미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한 건데, 잘 한 것 같아요. 그림을 계속 그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 재미있었어요.

소연: 저는 그냥 했어요. 그림책 수업이라고 하면 책 만드는 거니까 ‘나도 창작이란 걸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선생님은 뭔가 담겨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계시고, 저는 앉아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럿이 있으면 대화를 잘 하는데, 단 둘이 있으면 대화를 잘 진행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엄청 고민했어요. 수업을 단 둘이서 하게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자유분방해도 저 혼자 앉아 있으면 수업을 얼마나 진행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 시간, 두 시간이어도 그 시간이 사람의 체감에 따라 엄청 달라지는데. 중간에는 책임감으로 왔어요.

의리가 있네.

소연: 한 명이라도 안 하면 이 수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명단을 확인해봤어요. 아니 왜 우리 둘밖에 안 하는 거지? 심지어 저희 반에도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왜 안왔는지?

소연: 물어봤는데 그냥 못하겠대요. 시간이 7시에서 9시니까. 다른 한명은 원래 그림을 그리는 애라서 학원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연: 전 다른 애한테 물어봤는데 개는 그냥 첫 날 안 가서 어색하다고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재미있었는데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림책이 그림책이 아니었어요. 책을 만든다가 보다는 진짜 그림을 그리는?

“그림책이 그림책이 아니었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소연: 그림책도 어린이를 위한 게 있고, 성인을 위한 게 있잖아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이면서 어른이 보면 ‘아, 사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림은 정말 아기자기한데 내용은 철학적이란다가. 보통 그림책이란게 그림이랑 글이 같이 있고 “~가 있었습시다”라고 끝나는 게 많잖아요. 요즘 애들 읽는 거는. 그런데 그림만 있는 것도 있고, 그림책이라고 이름은 붙여놓았지만